

## 제9강: 후기 바로크[1670~1750] 시대의 건축가

### ◆ 1교시: 바로크 매너리즘의 종언과 후기 바로크의 시작

#### ▲ 바로크 매너리즘이란 무엇인가

바로크 매너리즘부터 나가겠습니다. 17세기 상황이 바로크라는 독립적인 양식을 만들어 낸 반면 16세기의 연속이라는 범위 내에 머문 건축가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속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17세기 상황이 더해져 변형된 거지요. 16세기는 매너리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되 바로크의 영향이 더해져서 바로크 매너리즘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가들로는 로마의 라이날디(Rainaldi) 부자가 있죠. 아버지는 지롤라모 라이날디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지롤라모의 대표작입니다. 어휘들이 문법 체계가 맞지 않아요. 상인방 위에 다시 오더가 아니고 주신도 아닌 이상한 부재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큰 원도 프레임이 올라가 있죠.

평면에서도 보면 그리크로스도 아니고 단일 바실리카도 아니고 애매하죠. 공간이 사면으로 확장되면서 중앙 집중형과 선형공간이 합쳐지면서 단일 사각형을 몸통으로 확장해 갑니다.

공간이 분할되면서 선형성을 추구하고 있죠. 전혀 어느 족보에도 없는 새로운 구성이라는 겁니다. 지롤라모는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는 아니었죠. 그 아들 카를로 라이날디가 더 유명한 건축가가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기본윤곽을 받아들여서 복잡하게 분할시킵니다. 이런 기법이 파라디오의 교회에서 많이 쓰던 것 중의 하나이죠. 팔라디오는 정통 고전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매너리즘의 기법을 보이죠.

그 다음에 평면의 벽채와 기둥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벽채 구조이기는 한데 기둥이 보통 평상적인 반원형 벽기둥보다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독립 원형기둥이라고 보기에는 그 역할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벽이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벽에 붙어 있기는 한데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종속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크적인 요동치는 벽면, 곡면의 효과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너리즘적인 애매함으로 볼 수 있죠.

입면 641을 보면 거리 확보가 안 돼서 좁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겹입니다. 2층을 보면 출입구 하나만으로 완결된 상태인데도 그 위에 윤곽을 하나 더 썼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즐겨 쓰던 기법이죠.

일단은 여러 가지 공간 성격이나 부재의 기능이 애매하고 실제로 팔라디오나 미켈란젤로 같은 매너리즘 건축가들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날디의 기법입니다.

그 다음 롱기(Longhi)의 건물, 643입니다. 이것은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기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요. 이것은 기둥이 무의미하게 많습니다. 마데르노의 기법도 아니지요. 마데르노에다가 페루치를 합해 놓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축가가 베네치아의 롱게나(Longhena)이지요. 베네치아는 조금 독특한 도시이지요. 워낙 운하가 많지요. 사이트가 불규칙합니다. 직각으로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비정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경향, 장식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크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어서 바로크 건축이 나타나지 못한 역설이 성립되는 도시입니다.

팔라디오까지 매너리즘은 굉장히 많이 융성을 많이 했는데 바로크는 크게 융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롱게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47에서 649를 남깁니다.

평면을 보면 중앙 집중성이 극도로 강조되었죠. 그러면서 라베나에 있는 비잔틴 교회를 선례로 삼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비잔틴, 중앙 집중형. 이런 것들이 전부 매너리즘적인 배경이죠.

가톨릭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온 바로크 시대에는 생각하기 힘든 경향이죠. 구체적인 외관 처리를 봅시다. 팔각형인데 한 쪽은 큰 출입구이고 뒤쪽으로 다른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일곱 면인데요. 647을 보면 정면 출입구 파사드는 신전 파사드인데 조금 높고요. 나머지 일곱 면은 조금 낮은 신전 파사드입니다. 649에서는 왼쪽 부분이 중앙 출입구입니다.

중앙 출입구의 신전 파사드는 개선 아치 모티프를 사용했습니다. 팔라디오가 빌라 파사드에서 많이 쓰던 어휘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입구 부분은 개선문의 로마 고전주의, 나머지 여섯 면은 셋으로 나눈 삼분할창. 이것을 로마 목욕탕에서 많이 쓰던 창들입니다.

저렇게 팔라디오의 선례를 많이 사용한 점이 매너리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바로크적인

경향은 동의 드럼에서 나타납니다. 소용돌이 문양의 부벽을 buttress로 받치고 있습니다.

부벽은 고딕이며 여성성을 상징하죠.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이 건물은 흑사병이 물러난 것을 감사하며 지은 봉헌교회입니다. Votive church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의 자비로 인해서 흑사병을 물리쳤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의 상징성이 강한 건물이죠. 고전적인 상징성이죠. 저런 것들이 바로크 매너리즘의 대표 경향이라는 겁니다.

#### ▲ 후기 바로크의 시작, 뻬에드몽과 폰타나

그 다음 후기 바로크로 넘어갑니다.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후기 바로크는 지역적으로는 로마와 남부, 남부는 나폴리와 시칠리아. 북부는 베네치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는 원래 바로크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양식으로서의 바로크가 융성하기는 어려웠죠.

조각장식 등을 중심으로 바로크 건축이 일정 부분 나타났죠. 뻬에드몽 지방은 토리노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베네치아가 있고 유명한 여러 도시들이 거의 다 같은 위도 상에 있습니다.

각각 알프스 너머의 지역을 상대하는 도시인데요. 여기도 조그만 도시들이 있는데 서북쪽에 선 마지막에 있는 큰 도시이지요. 이 지방을 Piedmont 지방이라고 합니다.

알프스 기슭이라 지중해의 반도 지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밀라노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는 정치적으로 보면 스위스, 프랑스와 연계가 강하고 자연적으로 보면 알프스 기슭 아래로 상당히 목가적인 분위기이죠.

그러면서 기후도 비교적 뚜렷한 사계절이 있죠. 겨울도 만이 안 춥지만 눈을 보입니다. 사계절이 반도보다는 비교적 뚜렷하죠. 이런 여러 특징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내에선 특별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남부는 홍수인데 서울은 햇빛 나기도 하죠. 일상이 지루하면 일기예보 할 때 중강진을 보세요. 거기는 겨울에 영하 28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부산 제주도는 해봤자 영하 1도인데 거기는 영하 28입니다. 물론 북쪽 땅입니다. 신의주 부근이죠. 우리나라도 반도라 아래와 위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이탈리아도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지역 중에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은 로마와 뻬에드몽 지방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망해도 삼대를 간다고 했듯이 로마가 처음 망했던 이후로 계속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때 부흥하다가 이때 다시 몰락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문명 중심이 알프스 이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부이죠. 이때가 후기 바로크입니다. 루이 14세도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지가 되고 대서양,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식민지 약탈을 시작하죠.

부가 편중되면서 대서양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급격히 쇠퇴하죠. 18세기에 오면 중첩이 되는 겁니다. 바로크 시기가 18세기 전반부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계몽주의 건축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몽주의부터는 현대건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뒤늦은 겁니다. 로마와 그곳을 중심으로 한 로마 고전주의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뭘니까. 로마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로마의 후기 바로크 건축은 아케데미즘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때 오게 되면 로마는 더 이상 창조적인 건축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뻘에드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것은 프랑스로 넘어가는 길목이므로 뻘에드몽이 권력의 중심부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반도 중심에서 점점 위로 넘어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카를로 폰타나라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천 육칠백년 되는 고전주의를 종합화합니다. 그래서 산 루카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것은 건축만 한 것은 아니고 회화도 같이 하면서 교황을 필두로 유력 가문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됩니다. 근대 아카데미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창작이 안 되니까 과외로 살겠다는 거지요.

중요한 이유는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를 거치면서 수많은 건축가가 배출이 됐잖아요. 그들의 도면 등을 모두 모아놓는 겁니다. 도서관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업적으로 남습니다. 비록 창조적 에너지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폰타나도 작품은 많이 남겼지만 훌륭한 건축가는 아니었는데 저 작업을 한 것이 평가를 받습니다. 산 루카 아카데미는 알프스 이북 지역에 후기 바로크나 계몽주의를 이끌어 갔던 주요 건축가들이 거의 다 거쳐 갑니다.

폰타나의 문하생이 되는 거죠. 저것이 바로 로마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은 어차피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 내는 분야니까 창작이 제일 일순위이지요.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런 식의 종합화 경향, 아카데미즘의 창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폰타나 개인의 작품을 보죠. 그림 657, 658입니다. 전형적인 종합화이죠. 일단은 오더 시스템을 이용한 마데르노 어휘, 곡면은 밀라노 초기 바로크에서 보로미니로 이어지는 측면이죠.

반면 출입문의 장경주의 기법은 베르니니의 기법이죠. 혹은 기둥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마데르노의 기법으로 볼 수도 있고 롱기의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출입구의 전체적인 장경주의 기법은 베르니니의 것인데요.

658을 보면 644와 유사합니다. 출입구를 여러 겹 싸는 것은 지롤라모 라이날디의 바로크 매너리즘을 이어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앞의 여러 경향들을 종합합니다. 바로크는 건축가 이름과 건물 이름을 잘 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은 알아서 들으면 이해가 되죠. 나중에도 대강 기억해서 쓸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실례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중간고사 때도 보니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못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크 시대 때 건축가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어렵습니다.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칼로 폰타나가 이런 식으로 로마 후기 바로크를 이끌어 가는 건축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 ▲ 뻬에드몽 지방의 세 건축가

그 다음 후기 바로크의 건물을 중심으로 보면 뻬에드몽 지방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역기서도 세 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아리니(Guarini), 주바라(Juvarra), 비토네(Vittone)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뻬에드몽 지방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커지면서 야심가가 등장합니다.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입니다. 이 앞뒤로 해서 이 지방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도시국가인데요. 자국의 전통적 건축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아리니와 주바라는 외부에서 데려온 경우입니다. 비토네는 뻬에드몽 사람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구아리니는 17세기 사람으로 연도로 보면 성기 바로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 경향으로는 후기 바로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뻬에드몽 지방의 후기 바로크의 문을 연 중요한 사람이고 17세기 전체를 통틀어도 베르니니와 보로미니에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창작력을 보인 사람입니다.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오스트리아에서부터 파리까지, 영국만 빼고 거의 온 유럽을 누비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 성직자인 동시에 수학자였습니다. 초기 근대기

의 3대 건축가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테아틴 수도회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톨릭 개혁운동을 목적으로 극기주의, 순결, 복종, 청빈 등의 핵심강령들을 내걸고 부패한 가톨릭을 내부로부터 개혁하자고 합니다.

구아리니는 집안 전체가 이 수도회 소속이고 처음에는 그 이력을 성직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아리니는 교회 건물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수도회 소속 교회이지요. 테아틴 수도회는 자신의 소속 건축가에게만 일을 맡기는 텃세가 심한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설계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외에는 없었지요. 다행히도 구아리니가 천재성을 발휘해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죠. 또한 수학자였기 때문에 기하작도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며 자유분방한 작품의 밑바탕이 됩니다.

## ◆ 2교시: 구아리니, 주바라, 비토네의 건축

### ▲ 구아리니의 건축 양식

베르니니 보로미니 양쪽에서 다 영향을 받은 셈인데, 뻘에드몽의 지방의 목가적인 분위기에 맞추어서 아주 장식성 넘치는 비정형 경향을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이 커지면서 지역적 요구가 많아지고 자국의 전통적인 국민정서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해 낼 건축가가 필요했는데 구아리니가 거기에 잘 맞아떨어진 거죠. 건축적 경향은 보로미르 경향을 많이 받았고 종교적인 영향은 베르니니로부터 받았습니다.

테아틴 수도원도 가톨릭의 일원이죠. 이런 종교심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에 잘 표현하는 태도는 베르니니의 영향이죠. 구체적인 건축 공법에 있어서는 보로미니의 곡면, 다음에 둠, 비정형 경향,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킨 건축가입니다.

베르니니와 보로미니는 그 이후에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베르니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정통 고전주의를 추구했죠. 프랑스는 표준 고전주의를 추구한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제 루이 13세 때 파리에 초빙 받아 십 개월 머무릅니다. 프랑스도 텃새가 심한 동네입니다. 파리 예술가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그래서 결국 천하의 베르니니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루이 13세의 조각상 하나 만들어놓고 손 털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베르니니의 정통 고전주의는 프랑스인들의 형식주의와 잘 맞으면서 프랑스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보로미니는 독일, 오스트리아, 뢰에디몽 지방 등 알프스나 보헤미아 지방 등 초원의 낭만, 자유 분위기가 강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죠.

장식적이고 곡선을 이용한 비정형 경향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출발을 끊은 사람이 바로 구아리니입니다. 기하작도를 바탕으로 파도치는 것 같은 곡면의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돔은 수직구성. 전부 보로미니가 보여준 것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특히 구아리니는 돔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돔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로미니를 능가할 정도로요.

수직 구성을 이용한 암천성. 상당히 중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유하는 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갖습니다. 보로미니는 기하는 변형이 심했어도 추적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아리니에 오면 그런 것이 깨집니다. 그림 672를 보면 산 로렌조의 돔을 작도한 것인데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 지 모릅니다. 이름이 붙은 기하작도의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비정형성이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건축부재를 대응시킨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조각부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로미니의 기법을 이어받아 좀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하는 돔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능한 한 고품체 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비 물질화 탈 물질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중세 기독교 건축의 생각이죠. 중세에서도 비잔틴에서는 돔을 사용했지만 고딕에는 네이브 월을 사용했었는데 다시 돔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비잔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아리니가 속했던 테아틴 수도회에는 극단적인 극기주의, 신비주의가 있었죠. 극기주의는 성직자들의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신비주의는 교회의 실내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에 잘 맞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산 로렌조입니다. 그 다음이 신도네입니다.

산 로렌조를 보면 복합기하를 수직적으로 중첩을 시킵니다. 675를 보면 돔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돔이 드럼 없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돔에 대해서는 드럼 역할을 겸하는 겁니다. 그 위에 또 드럼이 올라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돔은 펜던티브에서 드럼 없이 바로 올라가고 두 번째 돔은 그 자체로 드럼 위에 돔이죠.

돔인 동시에 전체적인 드럼 역할을 하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직성, 양천성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신도네입니다. 평면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건물은 불이 났는데요.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말이 많지요.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단순사고이나 방화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아름다운 건물인데 20년 쯤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678이 돔이고 679가 그 외관입니다. 678의 돔을 보면 육각형을 엇갈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게 합니다. 그 돔을 실내에서 본 것이 678이고 외부에서 본 것이 679입니다.

드럼 부분은 회선형 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잔틴에서 쓰던 기법입니다. 창 프레임을 이용해 드럼을 처리하던 기법들입니다. 산 로렌조의 기법이 조금 더 극단화된 예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건물이 palazzo 카리니아노입니다. 여기서는 바로크 매너리즘이 연속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창을 보면 어떤 부조화가 보입니다. 684보면 한 층을 셋으로 나눈 것인데 실내 구성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층이 다 독립층일지 아니면 천장이 높은 곳에 창만 이렇게 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맨 위의 층은 천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어휘를 보더라도 상당히 unbalance하고 층 구획이 애매합니다. 685에 오게 되면 부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크의 줄리아 로마노가 썼던 어휘의 일탈을 장식경향을 넣어서 바로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 전면은 보면 오목 볼록이 교대되면서 물결치는 듯한 구성이 나오죠. 이것은 보로미리의 곡면 경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상이 구아리니의 경향이었습니다.

#### ▲ 주바라의 건축 양식



주바라는 남부 지방 출신입니다. 시칠리아 출신인데 아까 말한 대로 로마로 가 카를로 폰타나의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칠리아도 만만치 않게 남부 지방 특유의 장식 경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고 기교에도 뛰어나서 폰타나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가 토리노가 점점 커지면서 그곳을 담당할 건축가를 찾게 되는데 결국 주바라가 아메데오의 수석 건축가로 발탁이 되면서 토리노 주변에 상당히 중요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주바라는 카를로 폰타나의 로마 후기 바로크의 정통 고전주의,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한 장식경향을 적절히 혼합했습니다.

장식경향은 로코코 경향과 맞아 떨어집니다. 18세기 전반은 뽀에드몽 지방의 후기 바로크, 독일의 후기 바로크,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로코코가 겹치는 시기이죠.

뽀에드몽 지방은 프랑스와 가까워서 로코코가 이탈리아로 역수입되죠. 이탈리아는 후기 바로크가 강했기 때문에 따로 로코코 없이 후기 바로크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바라입니다.

폰타나 밑에서 건축을 배웠으므로 구아리니의 작품들을 뽀에드몽 지방에 와서야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아리니 건축에 무관심한 척 했지만 폰타나의 건물에 구아리니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토리노에서 건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비중이 컸으므로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주바라의 경향은 정통 고전주의를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정경주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건물골격은 정통 고전주의입니다. 심각하게 뒤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목가적 풍경을 배경으로 장경주의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 장식으로 로코코 경향을 보여줍니다. 구조와 장식이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구아리니 건물은 구조 자체를 뒤트는 거지요. 물론 나중에 추가로 표면에다 장식을 더하기는 했지만 골격 자체를 뒤트는 것이고 그것이 비정형 효과죠.

반면 주바라는 건물 골격은 정통 고전주의를 구사하면서 표면 장식에는 로코코 어휘를 갖다 씁니다. 물론 시대상황이 주바라에게 요구한 탓이죠. 구아리니는 수도회 소속으로서 신비주의를 표현할 것을 요구 받았던 것에 비해 주바라는 공화국의 권력층을 위한 건물을 많이 설계했죠.

그러므로 연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되었죠. 귀족들이 연회를 하는데 뒤틀린 공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본 건물 골격은 크게 정통 고전주의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당시의 최첨단 경향이었던 로코코 양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바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698의 스투피니지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즘 아파트 광고 보면 유럽 성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거기에 독일의 술러스가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성은 전형적인 독일의 구성입니다. 이탈리아에 이런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때 이탈리아는 독립적 양식을 만들어 내는 단계를 지나 알프스 이북의 것들을 역수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수페르가는 수도원이었으므로 회랑이 있고 건물 구성을 보면 몸통은 바티칸 교황청의 구성이고 앞에 신전 파사드를 더했습니다. 전형적인 표준 고전주의를 쓴 것이고, 대신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죠.

연회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뒤의 그림 700입니다. 거대공간의 골격은 표준구성으로 하고 거기에 장식을 추가하는 거죠.

실제 가서 보면 상당히 목가적인 구릉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생각하면 하나의 무대 디자인을 해서 자연 배경 위에 놓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출입구를 보아도 신전 파사드를 오더를 몇 차례 지나야 하게 만들죠. 보통 면으로만 처리하는데 공간 깊이를 갖는 3차원 공간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장경주의의 시퀀스 구성을 추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경치에서 시작해 연속공간으로 이어지는 구성이죠. 혹은 694의 평면도를 보면 출입구가 있는 데크 부분이 스테이지처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의의 예이지요. 그림 700이 대형 연회공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 ▲ 비토네의 건축 양식

그 다음이 비토네입니다. 마지막으로 뻬에드몽 지방의 후기 바로크를 장식한 건축가입니다. 이때쯤 오게 되면 시대상황도 많이 바뀝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계몽주의 건축, 신고전주의 등이 등장하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이 대륙을 휩쓸죠.

장식 경향은 철지난 늦은 올드 패션처럼 되어 버리는 시기입니다. 비토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건축가이지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뒤처져서 철지난 장식을 갖고 기교를 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작품 자체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상당히 작품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로코코와 결부시키면서 바로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중요성을 갖는 건축가라

는 겁니다.

여러 선례를 종합해 자기만의 경향으로 삼습니다. 화려한 장식 경향을 특징으로 갖는데요. 706, 707을 보면 굉장히 장식적이지요.

평면작도도 보면 구아리니보다 더 합니다. 유형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구아리니보다 더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기하작도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후기 바로크의 깨지기 전의 불꽃으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화려한 비정형성을 추구한 건축가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